

1980년대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당의 청년전위로 준비시킨 불멸의 업적

김 춘 성

1980년대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당의 사상과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청년전위로 키워낸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이 아로새겨진 긍지높은 년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청년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당의 청년전위로 튼튼히 키워야 하며 청년들이 시대의 앞길을 개척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2권 484~485페이지)

청년들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교대자들이다. 혁명의 명맥은 새 세대들에 의하여 이어지며 조국의 앞날은 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은 새 세대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되는가 준비되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우리 당은 1980년대 각급 당위원회들에 청년사업부를 새로 내오는 조치를 취하고 당조직들이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하였으며 사로청(당시) 제7차대회를 계기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가 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여 모든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역세게 키워나갔다.

1980년대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당의 청년전위로 준비시킨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모든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워낸것이다.

사람은 청년시기에 어떤 교양을 받는가에 따라 혁명가로 될수도 있고 되지 못할수도 있다. 청년들은 감수성이 빠른것으로 하여 주위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청년들은 진취성과 정의감이 강하기때문에 좋은 영향을 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

우리 당은 우선 청년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청년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깨끗한 충정심을 간직하도록 하였다.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할 때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충정으로 모시고 수령님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변함없이 간직하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로작 《청년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은 다름아닌 청년운동이였으며 수령님께서서는 청년운동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시고 청년시절에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였다고 밝혀주시며 청년들속에 그것을 잘 인식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들속에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를 깊

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 청년들의 높은 긍지와 영예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주체71(1982)년 2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학습체제를 새롭게 개편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 당의 사상리론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웠다.

이에 따라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과 장군님의 사상리론을 해설한 도서들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장군님의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체득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불멸의 업적을 인식시켜나갔다.

청년동맹에서 진행한 주체70(1981)년 12월 영원히 당을 따라나가는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대오라는 강연은 청년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주체71(1982)년에는 강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청년들이 2개월동안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청년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과 혁명업적을 깊이 심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여러가지 행사들은 청년들속에 장군님의 위대성을 해설선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청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깊이 체득하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 당의 청년전위로 준비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청년들속에서 80년대의 김혁, 차광수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였다.

충실성은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기초할 때에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동요와 변심을 모르는 참다운것으로,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것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70(1981)년 7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청년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면서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청년들에게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기초할 때에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동요와 변심을 모르는 참다운것으로,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것으로 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깊이 깨우쳐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히 청년들속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실성의 산모범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당과 수령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김혁, 차광수동지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우리 당은 모든 청년들을 1920년대의 김혁, 차광수동지들과 같은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세월이 흘러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심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순결하게 이어받아 그들처럼 당과 수령에게 충정다해나가도록 하였다.

이 구호는 혁명의 러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충정으로 모시었던 것처럼 80년대의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는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사명이 담겨져있는 삶과 투쟁의 구호이다.

우리 당은 청년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는 문제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만이 참다운 충실성이라는것을 원리적으로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가 남긴 교훈과 결부하여 깊이 체득시키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들속에서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과 우리 인민들이 발휘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 대한 감상과 실효투쟁을 활발히 벌려 모든 청년들이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수령에게 충정다하며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적의리를 지켜나가도록 하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우리 인민과 청년들이 발휘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도 널리 벌리도록 하였다.

이 시기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진행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전투영웅들과의 상봉모임과 예술영화 《월미도》,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등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이밖에도 청년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반수정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강화되어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견결한 혁명가,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준비해나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품모에서는 전변이 일어나고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1980년대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당의 청년전위로 준비시킨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조직생활을 통하여 모든 청년들을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혁명가로 키워낸것이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청년들의 가장 값높은 정치사상생활이며 청년동맹은 우리 나라의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우리 당의 청년전위로 키우는 혁명의 학교이다.

우리 당은 청년동맹조직들이 동맹원들의 조직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청년들이 조직의 한 성원이 된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동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였다.

전동맹적으로 진행된 새 맹원증교부사업은 모든 동맹원들이 우리 당의 정치적후비대인 청년동맹원으로서의 영예와 긍지감을 가지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동맹가맹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주체72(1983)년 2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가맹선서》를 제정하도록 해주시고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청년동맹휘장을 수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청년동맹휘장을 수여받으며 청년들은 조직의 한 성원으로 된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조직생활을 잘해나갈 결의로 충만되어있었다.

우리 당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조직들이 조직생활을 당의 유일적령도체

계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맡겨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조직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청년동맹원들을 사상단련의 용광로에서 혁명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조직생활지도에 낮을 돌리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는것과 함께 동맹원들과의 사업지도서를 새롭게 내려보내어 청년동맹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청년동맹회의를 비롯한 조직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고 모든 동맹원들이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청년조직의 자립성을 살리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어 청년동맹조직들이 청년들과의 사업을 창발적으로 작전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사업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있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동맹조직들이 당에 끝없이 충실하고 단결력과 조직력이 강한 전투적조직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청년들은 누구나 다 조직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당의 참된 청년전위로 자라나게 되었다.

우리 당은 청년사업을 청년들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다양하게 조직진행해나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로청 제7차대회가 한별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회의때처럼 충정의 열정과 기백이 차넘치는 청년대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시였으며 경축야회를 완전히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혁명전적지에서의 답사행군도 1980년대 청년전위들의 답사행군답게 전국적인 범위에서 크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신문을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들의 역할에도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로동청년》신문과 잡지 《청년생활》을 잘 만들며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문학예술작품을 가지고 청년들을 교양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시였다.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꿈》, 《축복의 노래》, 《조선아 너를 빛내리》, 《나의 어머니》를 청년들속에 널리 보급하고 거기에 담겨진 뜻을 새겨나가도록 하였으며 《동지애의 노래》, 《내 삶이 꽃피난 곳》, 《그 품 떠나 못살아》를 비롯한 가요들이 창작되었을 때에도 청년들이 다 부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리 당은 대학생청년들과의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대학청년동맹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대학청년일군들을 충실성과 학과실력이 높고 대학생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청년핵심들로 잘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습, 경험교환회, 보여주기사업이 정상적으로 조직진행되었으며 대학생들은 20대, 30대에 세계적인 발명을 하겠다는 커다란 포부와 담력을 가지고 과학탐구에 정열을 바쳐가는 한편 벽찬 실천투쟁속에서 우리 혁명의 계승자, 청년전위로 믿음직하게 준비해나갔다.

1980년대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당의 청년전위로 준비시킨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청년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모든 청년들을 당경제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키워낸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돌격대적역할을 수행하는것은 청년들의 영예이며 자랑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은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강의한 의지를 키우며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세워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 당은 우선 청년들을 중요대상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투쟁에서 위훈을 떨쳐가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북부철길건설을 청년동맹에 통채로 맡겨주시고 청년들로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주시였으며 정연한 지휘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북부철길공사를 전동맹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며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적극 떠밀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북부철길건설의 나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필요한 대상설비와 자재를 담당한 공장, 기업소들의 청년동맹조직들이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청년건설자들의 생활문제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북부철길건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1980년대 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개를 시위한 보람찬 투쟁이였으며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들로 억세계 키운 혁명의 학교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밖에도 청년동맹이 검덕광업종합기업소개건확장공사와 제3선광장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단천제련소건설을 비롯하여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무산광산개건확장공사 등 수많은 중요대상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검덕의 건설장에 속도전청년돌격대가 파견되고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속에서 검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세계굴지의 광물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는 일대 양양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선발된 청년들이 간석지건설장에 진출하고 금속공업부문과 화학공업부문에 파견되어 커다란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당의 경제건설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역할도 한층 더 높아졌으며 정규화된 부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1980년대 기념비적건설대상들을 만년대계로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을 떨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의 청년돌격대운동도 활발히 벌어졌다.

우리 당의 각별한 관심속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조직된 청년돌격대들은 생산을 정상화하고 걸린 고리를 풀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당이 준 경제과업을 관철하는데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청년들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대중적인 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청년동맹에서 벌린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과 대안중기계공장(당시)청년들의 호소에 화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진행한 충정의 사회주의경쟁, 공화국창건 40돐을 앞두고 진행한 200일전투에서 청년결사대에

망라되어 위훈을 세운 청년들의 힘찬 투쟁은 주체77(1988)년도의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당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세워주어 그들속에서 기술혁신청년돌격대, 자동화청년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동맹에서 청년들을 기술혁신운동에 앞장세우기 위한 청년과학기술행군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고 전국청년발명 및 창의고안선구자대회도 마련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들을 기술혁명수행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므로써 새 세대 청년들속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발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 농촌청년들속에서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의 실패를 료해하시고 이 운동을 농업부문 청년들속에서 대중적혁신운동으로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청년작업반원들과 청년분조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고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으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로 시대의 앞길을 개척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에 서 있다.

모든 청년들은 주체의 한길로 전진하는 조선청년운동의 불패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전위,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청년전위, 계승자